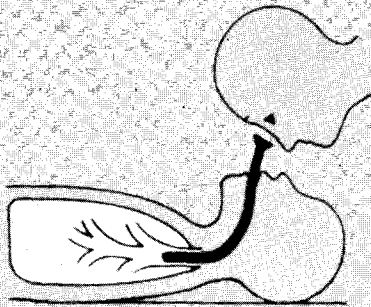


기관지결핵

이정희/한양대학병원 내과 과장



“
 기관지 결핵의 임상 증상은
 만성기침 또는 개가 짚는 듯한
 기침이 가장 흔하며 그의 흉통,
 호흡곤란 각혈, 발열을 동반할
 수 있고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

기관지 결핵은 결핵 병변이 기관지벽 내에 국한된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은 주로 폐실질질환을 동반하기도 하나 드물게는 폐실질질환의 동반없이 단독으로 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소아에서는 폐결핵이 있을 때 기관지를 따라 있는 림프결절이 건락화되어 파괴되어 기관지 내로 터져 기관지 벽에 궤양을 형성하여 기관지 결핵을 야기하며, 성인의 기관지 결핵은 폐실질에서 야기된 결핵균이 반복적인 침식을 통해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질환은 주로 20대 여성, 노인들, 알콜중독자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던 경우나 당뇨병 등이 있는 사람들에서 호발한다. 병변부위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좌폐하엽 기관지가 가장 많고 좌폐상엽기관지, 우중엽기관지, 우폐중엽기관지에서도 호발한다.

기관지 결핵의 병변은 초기에는 기관지 점막층의 임파구 침윤이며 여기에 울혈 또는 부종을 동반하여 기관지 내강을 부분적으로 폐쇄시키는 것이 가장 흔한 병변이다. 다음으로 흔한 병리소견은 이러한 임파구 침윤이 폐실질에 있는 병변을 건락성 괴사하여 더 진행되면 점막층에 결핵 병변을 초래하게 된다. 만연된 병변의 치유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편평상피세포로 그 세포모양이 변하게 되고 고유층의 섬유화를 동반한 기관지 내강의 폐쇄가 흔히 수반된다.

기관지 결핵의 임상 증상은 만성기침 또는 개가 짚는 듯한 기침이 가장 흔하며 그의 흉통, 호흡곤란 각혈, 발열을

동반할 수 있고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기관지의 결핵은 조기진단 또는 결핵균 검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질환중 하나이지만 그 임상증상이나 흉부 X-선상의 특이성이 없고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에서도 음성인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 그러나 기관지 병변을 적시하게 관찰할 수 있는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의 개발과 발달로 인하여 각종 폐질환의 감별진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굴곡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기관지 세척물의 결핵균 도말검사 및 조직생검 등으로 진단을 쉽게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지경검사와 조직검사소견에서조차도 결핵 특유의 병변을 찾기 힘들고, 만성기관지염, 폐암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소견과 유사하므로 반드시 세균학적 검사가 뒤따라야 한다. 기관지경에 의한 기관지 결핵의 일반적인 소견은 기관지 점막이 부종을 일으키며 궤양 및 부분적인 기관지 구멍을 폐쇄, 때로는 점막면에 돌출한 황백색의 작은 결절을 볼 수도 있으며 두꺼워진 점막의 광택이 소실된 소견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객담도말검사에서는나 기관지 세척에서 얻어진 검사물에서는 항산성 염색검사에 양성률이 높지 못하며 기관지 구멍이 이미 폐쇄된 경우에는 대부분 검사를 시행해도 배양에서도 쉽게 균을 발견 못할 경우도 있다.

기관지 결핵의 치료는 일반 폐결핵의 투여와 같으나 기관지내 백색의 가피막에 의한 협착이 존재할 때 기관지경을 통해서 그 가피를 박리하고 때로는, 스

이 질환은 주로 20대 여성, 노인들, 알콜중독자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던 경우나 당뇨병 등이 있는 사람들에서 호발한다.

테로이드 제제의 병행요법으로 효과를 많이 본다. 기침이 심할 때 일반적인 진해제에는 별 효과가 없으나 스테로이드 제제에 잘 반응하기도 한다. 광범위한 기관지 확장이 동반되거나 완전한 기관지 폐쇄가 있을 때는 외과적 절제도 생각해야 한다.

기관지 결핵의 주된 합병증은 무기폐의 형성인데 무기폐의 형성을 기타 염증 질환에 의한 점막의 부종, 섬유화 조직 또는 육아성 병변, 기관지 종양, 기관지 주위에 생긴 임파선 종대의 병변에 의한 기도 압박, 기관지 분비물의 과다 축적 및 흡인성 이물에 의한 기관지 내강 폐쇄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균명 또는 조직학적으로 결핵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만일 확인이 안 될 때는 더 세부적인 검사를 요한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진해제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침, 특히 개가 짚는 듯한 기침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결핵 만연 지역에서는 반드시 기관지 결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하고 무기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치료에 임할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